

키스를 부르는 움직임

작가 라파엘 로자노헤머 님 <메이크 아웃 Make Out>

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김경란 님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원 1층 로비에 작가 라파엘 로자노헤머 님의 작품 <메이크 아웃 Make Out>이 설치되었다. 이는 앞에 선 대상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변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품으로, 관람객들은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손을 뻗기도 하면서 단순한 관람을 넘어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다.



Rafael Lozano-Hemmer, <Make Out>(Plasma Version), 2009

6 Plasma screens, Computers, Industrial cameras, Infrared illuminators, iPod Touch remote control

119.4(h)×360.5(w)×12(d)cm

라파엘 로자노헤머 님은 1967년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내다가 캐나다로 이주해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다. 대학에서 물리화학을 전공한 작가는 전기로 작동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여왔다. 특히 야외의 넓은 공간이나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터랙티브 설치 미술을 통해 대중과 호흡하는 대형 규모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잘 알려졌으며, 작은 규모의 조각 설치를 통해서도 감각적 인식의 영역을 탐구해왔다.

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원에 설치된 작품 <메이크 아웃>은 일렬로 나열된 5개의 플라즈마 TV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니터 화면은 남자-여자, 남자-남자, 여자-여자 등 다양한 커플이 서로를 마주 보고 있는 작은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모니터 중앙 상단에는 모션 센서로 작동하는 키넥트(Kinect)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센서가 관람객의 움직임을 인식하면 관람객이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마주 보고 있던 화면 속 커플들이 키스하기 시작한다. 키스하는 커플을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가면 키스가 중단되고 처음처럼 마주 보고 있는 커플의 화면으로 돌아가는데, 이는 적절한 거리를 벗어나면 키넥트가 관람객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키스하는 영상은 작가가 인터넷과 고전 영화 등에서 고유한 미적 기준 아래 수집한 자료로, 현재 여자-여자 커플이 50%, 남자-여자 커플이 30%, 남자-남자 커플이 20% 정도의 비율로 설정되어 있다. 아이팟 리모컨으로도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지만, 일정한 시간마다 커플의 구성이 바뀌면서 다양한 화면을 제공한다.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러한 작품을 '인터랙티브 미디어'라고 부른다. 작가의

생각과 개념이 고유한 형태로 고정되는 회화나 조각과 달리 인터랙티브 미디어는 관람객의 참여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열려 있는', '친밀한', '동시대적인' 소통의 방식이 된다.

